

5장 근대 윤리 사상 (2)

※ 개념 정리 ※

① 공리주의

◎ 도덕 원리 및 입법 원리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행위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을 지니는 정도에 비례하여 옳음

- ① 공리(公利, utility): 어떤 행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그 행위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원리
- 쾌락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으며, 고통과 불행은 가려다 주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그름
- 인간은 개인의 쾌락과 사회적 쾌락을 모두 계산하여 공리를 계산할 수 있는 이성을 지닌 존재

② 결과주의 : 행위를 유발시키는 동기보다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중요시함

♠ 공리주의 ①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따라서 쾌락을 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이것은 언제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명이 필요없는 제 1 원리이다. 이 제1원리에 따라 행위 당사자에게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은 선(善)이요, 고통을 증진시키는 것은 악(惡)이다.”

◎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 양적 기준에 의한 행복 측정 : 쾌락의 종류는 하나
- 쾌락 계산의 기준 : 7가지 →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고 양적인 차이만 존재하며 양적인 계산이 가능

♣ 심화 개념 보충 : 제레미 벤담

벤담이 제시했던 윤리적 기준의 의도는 ‘입법의 기준’에 있습니다. 법률의 개혁을 이루고자 하였던 벤담에게 법이란 공동체 내에 있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리의 원리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치의 핵심이 ‘민주주의’이고 근대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핵심요소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태도를 옹호하는 입장을 자유주의라고 칭하였고, 벤담은 이러한 자유주의 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헛갈려 하시는 것 같았는데, 공리주의자들은 철저히 ‘공동체는 허구’라고 생각하며, 공동체는 개인의 합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위와 같이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러한 사상은 벤담뿐만 아니라 밀도 긍정합니다. 개인의 자유란 개인이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권리를 침해받거나 사회, 국가로부터 불필요한 구속을 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벤담은 ‘최소한의 정부’ 역할을 하는 정권을 선호했겠지요? 바꾸어 말하면, 자유방임에 따를 때 즉 정부가 대신 상황을 판단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이익에 대해 판단할 때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에서 ‘벤담은 이성과 합리성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서술하는 건 당연히 틀리겠죠? 합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할 것이고, 벤담은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리도 계산해야 할 것인데 이성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 밀 (J.S. Mill)

- 쾌락의 개념을 단순한 감각적 쾌락에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으로의 범위 확대
- 인간 본성 속에는 자기 중심적인 쾌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감’‘자애’ 등의 사회적 감정(social feelings) 강조
- 모든 쾌락이 계산 가능한 것은 아님 : 양적 쾌락은 계산 가능하지만, 질적 쾌락은 계산될 수 없으며 높고 낮음을 판단해야 함

※ 공리주의자 벤담과 밀의 차이점

밀은 인간의 본성 속에 자기중심적인 쾌락이 존재함과 동시에 다른 이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사회화의 원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밀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정의, 평등을 조화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밀이 보기에 벤담의 사상은 지나치게 논리적인 분석에만 치우친 면이 있었습니다. 개념서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벤담의 쾌락 측정 기준이 7가지라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점을 밀이 꼬집어 말한 것이죠. 밀은 벤담이 이성과 분석적 사고능력을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감정적인 측면을 경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윤리의 근원이 이성이라는 건 아닙니다. 공리주의자는 결국 사회적 이익이 행위 선택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리의 사회성 증명을 위해서 이성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벤담은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전체의 이익이 곧 개인에게도 이익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합리적인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유용성을 계산하고 그것이 일반적 유용성에 의해 더 이익이 됨을 알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밀은 양적 공리주의적인 벤담의 관점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공리주의에는 감정 및 내면적인 요소가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밀은 벤담과는 달리 인간 행위를 유발하는 동기가 그 행위로 인해 야기될 고통, 그리고 쾌락과는 별도로 여타의 다른 원인 또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밀은 인간 본성을 단순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벤담을 비판합니다. “동기는 셀 수 없이 많다. 연상에 의해 욕구 또는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며 말합니다. 추가로 밀은 인간의 본성에는 관습에 따르려는 욕구와 동정심 등 벤담이 주장했던 이성적 분석 능력 이외에도 수많은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밀은 쾌락 간의 양적 비교만이 가능할 뿐이라는 벤담의 쾌락관을 비판하며 쾌락의 질적 차이를 강조합니다. 물론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밀이 사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쾌락의 질과 동시에 양도 구분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밀에 따르면 저급한 쾌락보다는 고급 쾌락을 더 선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밀은 “두 쾌락 중에서 양쪽 모두를 경험한 사람들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한 것을 선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에 구애받지 않고 선택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보다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보며 쾌락의 질적 등급을 구분 짓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를 개별 행위에 적용 · 유용성의 계산 결과가 도덕적 직관에 어긋날 수 있음
규칙 공리주의	· 행위가 따르고 있는 규칙의 결과를 옳은 행위의 결정 기준으로 삼음 · 윤리적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더 큰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을 따를 것을 주장함 “ 한 행위는, 이미 형성되고 결정된 도덕적 확신을 가진 사람은 보류로 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회 구성원에 의해 도덕적으로 구속력 있다고 대체로 그 행위 당시에 인정된, 학습될 수 있는 일련의 규칙에 부합할 경우에만 옳으며 본래적 가치를 극대화 한다” 규칙 공리주의의 대두 배경에 대해서 “이영선(전남대학교, 2002) 규칙 공리주의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참고해 서술해보겠습니다. 행위 공리주의는 일반화를 거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행위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일반화는 예를 들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최대의 선을 가져온다.“같은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일반화가 항상 개인의 최대 이익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모든 성인 남자는 몸무게 30kg을 넘는다“라고 생각해봐도, 만약 30kg 이하의 남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는 옳지 않는 명제가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행위 공리주의에서는 어떠한 일반화도 거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행위 공리주의에 있어서 어떤 행위의 결과 속에 그 행위가 본보기가 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미치게 될 어떤 영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리주의니까요. 이러한 것들은 나의 행위가 가지는 직접적인 요소가 아니라 간접적 영향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행위의 영향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영향을 실제로 다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규칙 공리주의는 일반적 행복에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만, 즉 정당한 행동의 기준을 통해서 도달하려 한다는 점에서 행위 공리주의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칸트주의

① 칸트

- 선의지 : 옳은 행위에 대해 그것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 받아들이고, 이를 따르려는 무조건적인 의지
- 도덕적 행동 : 의무 의식을 따라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
- 정언 명령 : 조건이 필요 없고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며, 목적 그 자체의 형식으로 지시하는 보편적인 명령
- 도덕 법칙의 보편타당성과 인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격주의를 강조

함

- 결과가 아닌 동기가 행위의 선악을 결정한다고 봄

② 칸트의 윤리 사상에 대한 평가

- 인격주의 윤리설 : 인간의 인격을 절대적으로 강조
- 장점 : 도덕의 정언적 성격과 인간 존엄성의 정신을 잘 표현함
- 단점 : 이상주의적이고 엄격하여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제공하지 못함

③ 현대 칸트주의

- 로스 : 조건부 의무를 제시함
- 롤스 : 윤리 원칙에 대해 행위자의 자율적 선택을 강조함

♠ 칸트 (K. Immanuel) 칼럼

- 칸트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내용이기 때문에, 칸트 사상에 대한 흐름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서술할 내용은 칸트의 '윤리형이상학 정초'의 내용 중 교과과정 이해에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추려서 서술한 것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될 법한 내용을 정리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으니, 꼭 읽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칸트에 대한 서술은 2014년, 2015년, 2016년 연계교재에서 차차 그 수록내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서 쓰는 칸트에 대한 개념 내용은 최소 한 번 이상 연계 교재에서 서술된 바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보충한 것이므로, 한 번쯤은 자세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 ① 칸트는 윤리적 의무로서의 '책무'가 결코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이나 경험적 요소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책무'의 근거는 오직 순수 이성의 개념들 안에서, 즉 선験적으로만 찾아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경험으로 인한 행위들이나 규정들은 도덕 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서의 선지가 많은 기출문제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선지로 '자연적 경향성에 입각한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보았다'라고 서술한 것은 당연히 틀리겠지요.

그렇다면 칸트는 어떤 행위를 '선'하다고, 즉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했을까요?

- ② 칸트는 '선의지'라는 것은 이 세계 내에서 유일하게 그 자체로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연히 '선의지'는 그 자체로 의무의 개념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기에, 모든 기질(자연적 경향성)의 성질들을 넘어서 있는 것이고, 유용성이나 결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있는 것이겠지요. 칸트는 이러한 선의지에 입각한 행위들, 그리고 도덕 법칙에 입각한 행위들을 도덕적인 행위라고 평가합니다. 칸트는 이러한 선의지 개념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의무'라는 개념으로 보충합니다.

우선, 칸트는 의무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 가치의 영역에서 제외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행위가 유용할 수는 있지만, 유용성은 칸트의 '도덕성' 판단에 있어서 전혀 무관한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의무에 맞는' 행위가 모두 도덕적 가치의 영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비록 이러한 행위는 우연히 의무와 일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의 의도가 "의무 때문에"인지, 아니면 다른 이기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칸트는 '의무로부터' 도출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고 봅니다.

- ③ 이제는 칸트 사상이 구분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자연과 이성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에게 자연적 경향성, 즉 자연의 의도는 "행복"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본능에 맡김으로써 행복을 추구한다면, 이성인 이와는 다른 것을 의도합니다. 이성은 단순히 자연의 본능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즉 행복이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의지에 의해 인도되는 도덕적인 행위를 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즉 어떤 행위가 의무로부터의 행위, 즉 도덕적 행위이기 위해서는 경향성의 영향 및 그와 함께 의지의 모든 대상을 전적으로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무로부터의 행위이기 위해, 나의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경향성을 단절하고서라도 법칙을 준수한다는 준칙만이 남게 됩니다.

⑧ 목적의 나라

개개의 이성적 존재자는 자신의 의지의 모든 준칙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편적 법칙을 수립하는 자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신과 자신의 행위들을 평가하는 것이 보편적 법칙수립자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성적 존재자의 개념에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 '목적의 나라'입니다.

"개개 이성적 존재자는 자신의 의지의 모든 준칙을 통해 보편적으로 법칙 수립하는 자로 간주되어야 하는바, 그것은 이 관점에서 그 자신과 그의 행위들을 평가하기 위해 그러한데, 이성존재자의 이런 개념은 이 개념에 접속해 있는 매우 생산적인 개념, 곧 목적의 나라라는 개념에 이른다."

→ '나라'라고 쓴 것은 쉽게 말해 서로 다른 이성적 존재자들이 공동의 법칙에 의해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전체로서의 목적들의 체계를 목적의 나라라고 불렀는데 칸트에 따르면 이성적 존재자는 모두 하나의 공동의 객관적인 법칙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즉, 이성적 존재자들은 그들 각자가 자기 자신과 다른 모든 이들을 결코 한낱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서 대해야 한다는 법칙 아래에 종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자 수단인 이 존재자들 상호 간의 관계"를 이 법칙들은 의도하고 있기에, 비록 하나의 이상일 수는 있지만 목적들의 나라라고 불릴 수 있는 하나의 나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 선지 정리 ※

(1) 공리주의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입법 원리로 보았음.
-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
- 개인적 쾌락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행복과 쾌락을 강조하였음.
- 쾌락을 가져다주거나 고통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
- 쾌락은 유일한 선이고 고통은 유일한 악이라고 보았음.
- 쾌락은 도덕에 우선함.
-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함.
- 사회적 전통이나 관습이 아닌 유용성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기준.
- 더 많은 쾌락이 보장되면 고통을 수용한다고 보았음.

(2) 벤담

- 사회적 행복을 계산할 때 모든 사람의 행복을 동등한 자격으로 고려하였음.
-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공리주의의 도덕 원리를 따라야 함.
- 쾌락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일곱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았음.
- 도덕을 과학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려고 함.
- 보편적 도덕 원리는 존재함. (공리의 원리)
- 공익,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은 개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일 뿐이라고 보았음.
- 사회 또는 공동체는 개인의 집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따라서 개인을 초월한 공동선이나 개인의 이익과 독립된 공동체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 공리의 원리는 어떤 행위가 행복을 증진시키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그 행위를 판단하는 것. 이러한 공리의 원리가 바로 도덕과 입법의 기본 원리.

- 도덕과 행복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음.
- 도덕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실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
-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함께 고려하였음.
- 유용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를 도덕적인 행위로 보았음.
- 보편화 가능한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보았음.
- 행위의 결과에 비추어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음.

(3) 밀

- 쾌락에는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존재한다고 보았고, 행위의 도덕성은 그 결과에 의해 평가된다고 보았음.
- 양적으로 감각적 쾌락이 많을지라도 정신적 쾌락이 더 우월함.
-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로 보았음. 사회가 개인에게 강제나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할 것을 강조하였음.
-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 행동하면 개별성을 잃게 되고 자유가 억압될 수 있음.
-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보았음. 자기 자신에 대한 일은 각자가 주권자라고 주장하였음.
- 다른 사람에게서 일체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각자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유가 필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즉, 자유는 반드시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
- 개별성이 발전하는 것과 비례해서 사람은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보았음. 개별성을 짓밟는 체제는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최악의 독재 체제라고 주장하였음.
-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수자의 토론의 자유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함.
- 정상적인 인간은 누구나 질적으로 수준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함.
- 감각적 쾌락보다 내적 교양이 뒷받침된 정신적 쾌락을 중시해야 함.
-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고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음. 더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려면 열등한 사람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음.
- 인간의 주된 특성을 이기심으로 본 벤담과 달리, 인간에게는 동정심이나 자비심도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음. 따라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벤담

이 들었던 네 가지의 외적 제재 외에 내적 제재(양심의 가책 등)도 강조하였음.

- 소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음. 가장 정확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상의한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음. 관용적 태도를 강조하였음.
- 인간은 누구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 여성의 종속을 비판하고 여성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강조하였음.
-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음.
-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음.
- 쾌락의 질은 쾌락의 양과 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
- 도덕적 가치는 경험적 사실을 토대로 알아낼 수 있음.
-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도 반드시 옳은 행위는 아닐 수 있음.

(4) 칸트

-인간의 의지가 도덕법칙을 따르고자 할 때 본능적 욕구의 저항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도덕 법칙은 인간에게 의무의 법칙으로 다가온다.

-인간의 의지가 도덕 법칙을 따르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칸트는 어떤 행위가 단지 경향성으로부터, 혹은 행복을 얻으려는 동기에서 행해질 경우에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칸트의 입장이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행복이 동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애정이나 애착이 아니라 의무에서 비롯되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 행위, 즉 도덕적 행위이다.

-행위의 결과는 수많은 변수와 우연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악으로도 흐를 수 있는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이란 오직 행위자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 즉 행위자의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선의지만이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근거라고 보았다.

-즉 인간의 자기애에 근거한 자연적 경향성은 도덕 법칙에 따른 행위를 방해한다고 보았으며, 동정심은 하나의 수동적인 정념이며 때로는 악을 옹호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성의 근본 원리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행위의 결과는 수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간이 책임질 수 없는 대상이다.

-인간을 철저하게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보는 당시의 인간관을 강하게 비판하며 인간은 고유한 도덕 법칙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행복의 추구를 악덕으로 여기거나 행복과 도덕이 언제나 대립적 관계에 있다고 보

지 않았다. 칸트에게 있어서도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도덕적으로 마땅한 일이기까지 하다. 다만 도덕적 의무가 문제일 때 자기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결코 선한 일일 수 없다. 그래서 칸트는 의무가 문제일 때는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칸트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으로 보았다.

-도덕적 선의 추구하고 행복의 추구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도덕적으로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면 된다!

-도덕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도덕의 목적은 도덕의 바깥에 존재하지 않는다.

-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간주하고,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를 목적의 나라라고 말하였음.

- 보편적 타당성을 지닌 도덕적 원리를 강조하였음.

- 도덕 법칙은 가언 명령이 아닌 정언 명령.

- 도덕 법칙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나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것.

- 어떤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행위 그 자체에 내재해 있음.

- 준칙 중에서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것만 도덕 법칙이 될 수 있음.

- 동물은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인간은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 해야 함.

- 신의 계시가 아니라 자신의 도덕 판단에 따라 행위 할 것을 강조하였음.

- 도덕 법칙은 무조건적 명령으로, 명령의 전제가 되는 어떤 상위의 목적이 있으면 안 됨. 행복이 도덕에 우선하는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의지가 도덕 법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욕구의 저항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실천 이성온 경험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닌 선형적인 것.

-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도덕 법칙을 자발적인 의지로 인해 따르는 것.

- 선의지는 선천적인 것이며, 이성적 존재자는 보편적 법칙의 입법자이자 그 법칙을 따르는 집행자.

- 행복주의를 비판하였음. 도덕은 행복이나 다른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

- 도덕과 행복이 모순 관계에 있다고 보지는 않았으며, 행복과 쾌락의 관련성을 부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선의지의 영향을 받으며 보편화될 수 있는 행위가 도덕적인 가치를 띠는 행위.

- 행복은 도덕 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행복을 위한 경향성이 도덕의 토대가 되어서는 안 됨.

- 악으로도 흐를 수 있는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마땅히 옳은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무 의식에 따라 도덕 법칙을 따를 때 우리는 인격적 존재가 될 수 있음.
- 도덕과 행복은 양립 가능하지만, 행복을 도덕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음.
- 어떤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의무에 일치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하지만 이러한 언급이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경향성의 충족에서 오는 만족감이나 행복이 동반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님. 단지 경향성은 무엇이 의무인가를 결정하려 할 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할 뿐. 즉, 모든 행복의 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의무를 고려하는 데 방해가 되는 행복의 추구를 거부한 것.
- 인간의 자기애에 근거한 자연적 경향성은 도덕 법칙에 따른 행위를 방해한다고 보았으며, 동정심은 하나의 수동적인 정념이며 때로는 악을 옹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덕성의 근본 원리가 될 수 없다고 보았음.
- 도덕 법칙이란 보편성을 확보한 준칙. 따라서 보편화 가능하지 않은 준칙을 보편 법칙으로 삼는 순간 파기될 수밖에 없음.
- 인간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고유한 도덕 법칙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 인간은 이성의 명령에 따라, 자유의지에 따라 도덕을 실천함.
- 선의지는 세상 안팎에서 무제한적으로 선한 유일한 것.
- 도덕 법칙은 모든 이성적 존재가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 법칙.
- 도덕의 목적은 도덕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개인의 내면적인 자유를 중시하였음. 또한 도덕은 그 자체로 가치 있으며 그 자체로 숭고하기에 다른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다고 보았음.
- 도덕적 선의 추구하고 행복의 추구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 제시문 정리 ※

(1) 벤담

- 어떤 행위가 지니는 쾌락의 수치와 고통의 수치를 비교했을 때, 쾌락의 수치가 남는다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다.
- 쾌락을 측정한 결과 그 총량이 최대가 되는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이다.
- 쾌락을 가져오는 행위가 윤리적 행위이다. 측정된 쾌락의 양이 크면 클수록 그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더욱 크다.
- 최선의 결과를 낳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동기는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어도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어떤 행위의 동기와 그 행위의 도덕성은 아무 상관이 없다. 동기가 의무감 때문이든 아니면 행위를 통해 보상받고자 하는 희망 때문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결과에 의해서 판단된다.
- 한 행위가 지니는 좋은 성향의 정도와 나쁜 성향의 정도를 모두 더했을 때 쾌락의 양이 크면 클수록 그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크다.
- 행위의 옳음과 그름을 판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 행위가 산출하는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
- 모든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유

일한 기준은 행위에 의해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

- 쾌락이 곧 행복이며 삶의 목적입니다. 쾌락의 양을 계산하여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것이 선(善)입니다.

- 도덕과 입법의 원리는 쾌락과 고통에 근거해서 찾아야 한다. 쾌락의 양(量)은 과학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는 승인되고 불행을 가져오는 행위는 부인된다. 쾌락이나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는 행복으로, 고통이나 손해를 가져오는 행위는 불행으로 이어진다. 쾌락의 양은 계산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등이다.

- 도덕 판단의 기준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쾌락 추구하고 고통 회피가 입법의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쾌락과 고통의 양은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강렬하고 지속적이며 확실하고 근접해 있으며 생산적이고 순수한 것. 쾌락과 고통에도 이와 같은 성향이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이 쾌락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법. 사적이라면 당신의 목표로 삼고, 공적이라면 널리 전파하라.

(2) 밀

-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은 유용성의 원리와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쾌락의 양만을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서로 다른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선택한 쾌락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품위 있는 삶을 위해 저급한 쾌락보다는 고상한 쾌락을 선택할 것이다.

- 쾌락의 양이 많고 적음을 사소하게 만들 정도로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이 존재한다. 어느 누구도 동물적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 준다고 해서 동물이 되겠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 내적 교양이 뒷받침된 정신적 쾌락은 감각적 쾌락보다 더 수준이 높으므로 쾌락

의 양만을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도덕적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인간은 감각적 쾌락보다 지적·정신적 쾌락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

－ 쾌락에는 질이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다. 그 차이는 두 쾌락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이 알 수 있다. 쾌락을 향유하는 능력이 적은 사람은 질이 낮은 쾌락을, 품위 있고 수준이 높은 사람은 질이 높은 쾌락을 추구할 것이다.

－ 일반에게 승인되고 있는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터놓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것이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다.

－ 행복은 고통이 없는 것이며, 불행은 쾌락의 결핍이다.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기에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3) 칸트

－ 더 이상 어떤 경향성에 의해서 이끌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무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그 행위는 비로소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 그 자체로 선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물론 감정의 적절한 절제를 선이라 부를 수도 있지만, 악한 사람이 그러한 절제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를 훨씬 더 위험스러운 냉혈한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 자신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의무를 위반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행복만을 추구하는 일은 직접적으로 의무일 수 없으며 의무의 원리일 수는 더욱 없다.

－ 국가는 공동의 법칙 아래 이성적 존재자들이 체계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이성적 존재자는 단지 수단이 아니라 동시에 목적이므로 이 국가를 목적의 나라라 부를 수 있다. 목적의 나라에서 이성적 존재자는 법칙 수립자인 동시에 그 법칙을 따르는

시민이기도 하다.

－ 모든 인간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지니며, 쾌락에 이끌리는 습관적 욕망이 인간을 제약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습관적 욕망인 경향성이 선한 의지의 개입 없이 형성되었을 때 존경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 선의지의 지배를 받으며 보편화 가능한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이다.

－ 자유는 도덕 법칙의 존재 근거이며, 도덕 법칙은 자유의 인식 근거이다. 자유가 없다면 도덕 법칙은 발견될 수 없다. 이러한 자유 덕분에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간주하고,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를 목적의 나라라 부른다.

－ 저는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자신 스스로 만든 격률에 따르는 것이 옳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자연의 사물은 모두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성적인 존재만이 원리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을 갖는데 이것이 의지이다. 법칙으로부터 행위를 이끌어내는 데는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는 실천 이성인 것이다.

－ 이성적 존재만이 법칙에 대한 표상에 따라 행하는 능력을 갖는데 이것이 의지이다. 그 의지가 바로 실천 이성이다.

－ 선행(善行)을 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타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동정심을 발휘하여 선행을 하는 것은 의무 의식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 이성이 순수한 실천적 법칙들을 규정하는 필연성에 주목할 때, 우리는 그 자체가 목적인 보편적인 도덕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다.

－ 자연적 필연성은 이성이 없는 존재의 특성이지만 자유는 이성적 존재의 특성이다. 왜 이성적 존재가 자유를 가졌다고 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이성적 존재가 실천 이성으로 타인의 영향과 관계없이 보편적 도덕 법칙에 맞는 자신의 격률을 만들기 때문이다

－ 도덕성은 법칙으로부터 유발되는 의무의 관념이 동시에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며,

단지 의무에 맞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 선의지는 자연적인 건전한 지성에 내재해 있고, 가르칠 필요는 없으며 단지 계발될 필요만 있는 것이다.

— 너의 행위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 동정심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매우 칭찬 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조차도 도덕적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의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성 안에서 의무의 이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성이 정해주는 도덕 법칙의 위엄이 그 이념을 거역하려는 모든 경향성을 압도할 수 있다.

— 의지의 선행이 도덕성을 결정한다. 선의지는 의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의무의 행위는 정언 명법으로 표현된다. 인간은 정언 명법을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따른다. 이런 이유로 도덕 법칙은 자유의 법칙이 되는 것이다.

— 도덕 판단의 기준은 의무를 따르고자 하는 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의 진정한 사명은 다른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선택한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는 의무에서 행해질 때에만 도덕적으로 가치 있다. 경향성으로부터 행해진 행복 추구 행위는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다.

— 선의지에 스스로의 의도를 성취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 해도, 또한 이 의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루는 것이 아예 없다 해도, 선의지는 마치 보석과도 같이 그 자체로 빛나며 스스로의 모든 가치를 그 자체에 간직한다.